

중국·일본·대만의 출판동향

안준모_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

세계 각국의 출판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출판의 글로벌화에 따라 저작권 시장의 다변화 경향이 눈에 띈다. <출판저널>은 국내 출판 문화계에 세계의 출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출판사에는 자생력 강화의 계기를, 독자에게는 출판의 국제적 흐름을 인식하는 계기를 주고자 한다. 중국·일본·대만의 출판동향에 이어 8월호에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의 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중국·일본·대만 도서전의 특징

★ 타이베이국제도서전

매년 2월 개최. 2002년에는 47개 국가에서 1,015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입장객은 30여만 명에 달했다. 전시장인 타이베이세계무역센터의 면적은 3만6,000제곱미터이며, 처음 2일은 전문가의 날로 운영, 나머지 4일은 일반에게 공개된다.

★ 동경국제도서전

매년 4월 '세계 책의 날'을 전후 개최. 2002년에는 23개 국가에서 533개사가 참가하였으며, 방문객은 모두 4만2,369명을 기록했다.

★ 북경국제도서전전시회

중국 최대규모 도서수입회사 중국도서진출구(집단)총공사와 정부부처인 신문출판서와 공동주최. 2003년 북경국제도서전은 사스SARS의 영향으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로 연기되어 개최된다. 2002년 북경국제도서전에는 모두 900여 참가사가 2만 6,000제곱미터의 공간을 차지하였고, 40여 개 국가가 참가를 하였다. 관람객은 12만여 명이었고, 출판관계 전문가들도 3,000여 명이 다녀갔다.

★ 상하이도서관권무역살롱

격년으로, 2003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 전시장 면적은 3,360제곱미터로서, 전시회 기간 중에 저작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출판관련 전문가들에게만 개방이 된다.

● 중 국 출 판 시 장

중국도서시장의 2001년 총판매액은 미화 11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전체발행종수는 14만여 종, 신간발행종수는 8만 9,950종이었다. 평균도서정가의 경우 중국시장에서는 하드커버가 존재하지 않으며, 페이퍼백의 경우 18원(약 2,700원)가량이다. 중국은 도서정가제가 없지만, 모든 도서에는 책마다 정가가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할인이 종종 이루어진다. 저작권법은 1990년 제정하였고, 국제저작권 협정은 1992년부터, 베른협약도 1992년부터, 2001년 저작권법 개정, 출판산업규제법 2002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국출판계에서는 1999년에 미국에서 2,292종, 영국에서 860종, 독일에서 389종 등 모두 6,461종의 저작권 수입계약을 맺었고, 418종의 저작권을 외국에 수출했다. 2000년에 중국은 70만4,119종, 240만4,000부, 1,233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수입은 금액면에서 두 배 정도 많은데, 45만3,722종, 208만1,700부의 도서를 수입하여 2,430만 달러에 달했다. 현재 중국에는 30여 개의 도서수출입회사가 허가를 받고 영업중이다.

출판사 수는 국가에서 공인된 562사가 있고, 서점은 대략 7만5,235개 서점 중에서 3만7,448개 서점이 개인 소유이고, 1만 3,283개 서점이 신화서점 계열사이다. 중국 국내 도서관매는 국영체인 신화서점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며,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80퍼센트 이상의 도서가 신화서점 계열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 반면에, 제2유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소유의 서점들도 도서를 판매하고 있다. 수입도서는 국영 외국어도서서점을 통하여 판매가 되는데, 통계자료는 현재 없는 실정이다.

● 일 본 출 판 시 장

일본도서시장의 2001년 총판매액은 216억 달러(대략 22퍼센트는 만화)정도이며, 8억7,600만 부가 판매되었다. 연간 전체발행종수는 42만5,000여 종이며, 신간발행종수는 7만여 종이다. 평균도서정가에 대한 자료는 없으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서는 일찍부터 국제사회와 교류를 하여, 베른협약(1899년), 세계저작권협정(1956년부터)을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 거래관련 통계와 도서수출입에 관한 통계자료는 없다. 출판사는 모두 4,500여 사가 있으며, 서점은 1만277개가 있다.

● 대 만 출 판 시 장

대만도서시장의 총판매액은 미화 10억 달러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연간 미화 120달러의 도서를 구입한다. 연간 신간발행종수는 3만8,000종으로 번역서 8,000종이 포함되어 있다. 평균도서정가는 하드커버의 경우 15달러, 페이퍼백 6달러, 그림책 20달러이다. 가격이 책에 인쇄되어 있으나, 구속력이 크지는 않다.

1992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미국, 영국, 홍콩의 저작물 보호하기 시작하여, 19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모든 해외 출판물에 관한 저작권을 보호하게 되었고, 1998년 1월부터 강화된 저작권법을 개정 시행중이다. 중국과의 양안문제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국제적인 수준의 저작권 보호가 되고 있다. 저작권 거래관련 통계와 도서수출입과 관련한 자료는 없다.

출판사의 수는 5,200개사이며, 그중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는 출판사는 400~500개이다. 서점의 수는 1,000여 개이며, 간이판매점 등을 포함하면 도서를 판매하는 곳은 4,000여 개소이다. 도서관매는 도서유통 24퍼센트, 방문판매 12퍼센트, 학교 및 대학교재 20퍼센트, 우편주문 및 온라인판매 10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한**

